1. 화창한 오후, 운동장 벤치

- a. 벤치에 앉아 햇빛을 맞으며 청승 떨고있는 명구
- 그 옆에서 헤벌래 하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진규.
- 나레 (V.O) 저런,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만나러가고 둘만 남았군요.

명구는 태양을 바라보며 씁씁한 듯 한숨을 푹 쉰다.

- 명구 하, 우성이도 연애하고 민석쿤도 연애를 하는데 왜 우린 여자가 없냐.
- 자막 *민석이가 아직 헤어지기 전입니다.*
- 진규 (폰에 시선집중) 미안한데 너만 없는 거야.
- 명구 (짜증 확 내며)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.
- 진규, 명구 말 무시하고는 계속 카톡중, 명구 살짝 훔쳐보고는 화들짝 놀란다.
- 명구 와 시바 진짜네.
- 진규 (짜증내며 핸드폰을 숨기며)아 왜 훔쳐봐,
- 명구 니가 대놓고 하는데 안보겠냐 그럼?
- 진규, 등돌려서는 다시 카톡하며 헤벌래.
- 그런 진규를 유니콘 보듯 신기하게 바라보는 명구. 말문이 막힌 듯 하다.
- 명구 미친 말도 안 돼. (진규에게 바싹 붙으며) 진규야,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냐. 소개?
- 진규 (으쓱)뭐 그런 셈이지.
- 명구 (의심)너 친구 우리밖에 없잖아.
- 진규 아 있어.
- 명구 (진규를 의자에서 밀어버리며) 야 씨바 솔직히 말해. 말하라고!
- 진규 아 왜 오바야!
- 명구 너까지 가면.,. (울먹) 나는 혼자잖아..
- 진규 (감동받은 듯)명구야..
- 명구 진규야..
- 진규 (정색) 분위기 잡지마 씨바라.
- 명구 (다시 진규에게 앵기며) 그니까 나도 알려주라고. 너만 좋은 거 하냐?
- **진규** (고민)아 그니까 이게... (한숨 한 번 쉬고는 명구에게 비장하게) 너 애들한테 말하지 마라.
- 명구 걱정 하지마! 내 입 진짜 졸라 무거운거 모르냐?
- 명구, 입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연기 시전.

- 진규 미친 새끼... (쭈뼛쭈뼛) 그니까 이게...
- 명구 (답답) 아 뭔데 뜸 들여!
- 진규 아오 좀 쳐 들어봐.
- **명구** (방긋) 오키~
- 진규 돛단배라고... 그니까... 그 어플 같은 거거든?
- 명구 어플? 스마트폰?
- 진규 (핸드폰을 보여주며) 어 그니까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?
- 명구 가가라이브 이런 건가?
- 진규 그치 비슷한 거지.
- 명구 진규야 너 여기서 여자 만든 거냐?
- 진규 (머쓱) 어.